

01

2027학년도 수능 EBS 연계 반영 실전 학습

월간 간쓸개

국어영역 독서/문학

- 매일 꾸준히 2지문
- EBS 연계 학습 루틴 완성
- 4주 구성, 독서 20set 문학 20set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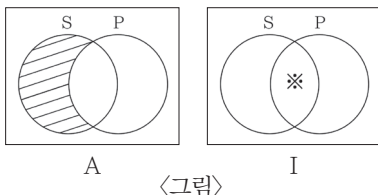
“모든 동물은 죽는다.”와 같이 ‘동물’ 집합, ‘죽는 것’ 집합 등 집합들 간의 관계를 주장하는 문장을 **정언 문장**이라 한다. 또한 “모든 동물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이 두 정언 문장을 전제로 삼아 하나의 정언 문장을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정언 삼단 논증이라 한다. 연역적으로 추론한다는 것은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임을 뜻하며, 실제로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면 그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다.

정언 삼단 논증의 타당성 검사 방법을 최초로 연구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런데 정언 문장에서 문법적 주어나 문법적 술어*가 모두 논리적으로는 술어에 해당한다고 보는 현대의 술어 논리에 따르면, 정언 문장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에는 오류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언 문장은 전칭 긍정(A)인 “모든 S는 P이다.”, 전칭 부정(E)인 “어떤 S도 P가 아니다.”, 특칭 긍정(I)인 “어떤 S는 P이다.”, 특칭 부정(O)인 “어떤 S는 P가 아니다.”로 구분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A의 의미가 I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여겼다. A로부터 I가 연역적으로 타당하게 추론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존재 가정’의 오류를 아리스토텔레스도 범한 탓이다.

우리는 정언 문장을 말할 때 ‘S인 것이 있다.’ 또는 ‘P인 것이 있다.’와 같은 ‘존재 가정’을 하곤 한다. ‘존재 가정’에 따라 S와 P가 모두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만을 생각한다면 A의 의미는 I의 의미를 포함한다. 하지만 일각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모든 일각수는 머리에 뿔이 달린 말이다.”라는 문장이 의미가 있고 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존재 가정’은 오류이다. 또한 S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A는 항상 참이 된다. A는 “집합 S가 집합 P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의미인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S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I는 거짓이므로, 결국 A로부터 I가 타당하게 추론된다고 말할 수 없다.

술어 논리를 개발한 프레게에 따르면, A를 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것은 “모든 x에 대하여, 만약 x가 S라면 x는 P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S와 P는 분명히 집합을 지칭하는 술어이다. 따라서 A는 “집합 S의 원소’이면서 ‘집합 P의 원소가 아닌 것’은 없다.” 즉 “집합 S와 ‘집합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A가 집합 S와 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존재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한편 술어 논리에 따르면, I는 “x가 S이고 x가 P인 그러한 x가 존재한다.”라는 존재 문장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다시 “집합 S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P의 원소’인 것이 있다.”, 즉 “집합 S와 ‘집합 P’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를 의미한다.

〈그림〉은 A와 I의 의미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빗금은 해당 영역에 원소가 없음을 뜻하며 ‘※’ 표시는 해



당 영역에 원소가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이는 해당 영역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A의 표기를 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타당성을 따져 보는 방법은 ‘존재 가정’을 하지 않는 술어 논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A의 의미가 I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도 알 수 있다.

* 술어 :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하는 말.

1.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타당한 정언 삼단 논증은 두 정언 문장의 참이 또 다른 정언 문장의 참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논증이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S가 존재하고 ‘모든 S’는 ‘어떤 S’를 부분으로 포함하므로 전칭 긍정의 의미는 특칭 긍정의 의미를 포함한다.
- ③ 술어 논리에 따르면 “모든 S는 P이다.”는 ‘집합 S’가 ‘집합 P’의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④ 술어 논리에 따르면 “어떤 S는 P이다.”는 “어떤 P는 S이다.”와 달리 ‘S’이면서 ‘P’인 것이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 ⑤ 술어 논리에 따르면 일각수가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모든 일각수는 머리에 뿔이 달린 말이다.”라는 문장은 참이다.

2. 정언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언 삼단 논증에서 전제로 사용될 수 있으나, 결론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특칭 긍정으로부터 전칭 긍정이 타당하게 추론된다.
- ③ 특정한 두 집합이 동일하다는 뜻으로,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 ④ 프레게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논리적으로 분석할 때 ‘사람’은 주어, ‘죽는 것’은 술어에 해당한다.
- ⑤ 프레게에 따르면, 정언 문장을 이루는 두 술어가 지칭하는 집합의 교집합에만 원소가 있다면 전칭 긍정과 특칭 긍정은 모두 참이다.

3. ㉠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S인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I는 S인 것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 ② A는 S인 것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지만 I는 S인 것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 ③ A로부터는 I가 타당하게 추론되지만 I로부터는 A가 타당하게 추론되지 않는다.
- ④ A와 I는 모두 ‘집합 S’와 ‘집합 P’가 공히 공집합이 아니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 ⑤ I는 A와 달리 ‘집합 S’와 ‘집합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인지의 여부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4. ‘술어 논리’에 따라,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모든 M은 P이다. 모든 S는 M이다. 따라서 어떤 S는 P이다.” 라는 정언 삼단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에 따르면 타당한 것이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동원하여 타당성을 검사해 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타당성 검사 방법은 두 전제의 의미를 표기했을 때 그곳에 이미 결론의 의미가 담겨 있으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림에서 1~8은 각 영역을 지칭한다.

- ① ㉡에서 M과 S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전제가 모두 참이 되지만 “어떤 S는 P이다.”는 거짓이 된다.
- ② ㉡에서 “모든 M은 P이다.”는 ‘집합 M의 원소’이면서 ‘집합 P의 원소가 아닌 것’은 없다는 의미로, 4와 7에 빗금으로 표시된다.
- ③ ㉡에서 “모든 S는 M이다.”는 ‘집합 S’와 ‘집합 M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로, 1과 2에 빗금으로 표시된다.
- ④ ㉡의 두 전제들의 의미를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했을 때 2와 5 중 어느 곳에도 ‘※’ 표시가 없기 때문에 ㉡에서는 “어떤 S는 P이다.”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
- ⑤ ㉡에서 결론만을 “모든 S는 P이다.”로 교체한 새 논증의 경우,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두 전제들의 의미가 결론의 의미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8분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
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A]

황금의 꽃갈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B]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려졌습니다. [C]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D]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
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E]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F]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나)

1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
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
를 불러 보리라.

2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
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
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
고 할 것을 믿는다.

- 황동규, 「즐거운 편지」-

2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영단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청자를 표면에 드러내어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의문형의 문장을, (나)는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27. [A]~[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이별로 인한 화자의 심리적 고통을 드러낸다.
- ② [B] : 유사한 성격의 두 행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이별의 상황에서 비롯된 화자의 허망함을 강조한다.
- ③ [C] : 이치에 맞지 않는 진술을 통해, 고통스럽지만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 자세를 강조한다.
- ④ [D] : '사람의 일'과 '뜻밖의 일'을 대비하여, 이별이 화자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으로 다가왔음을 드러낸다.
- ⑤ [E] : 이별의 '슬픔'을 '힘'과 결부하여, 이별을 그치지 않는 사랑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Day 1

[1~4] 인문

정언 삼단 논증의 타당성 검사

: 해당 지문이 어려웠다면, 지문 분석 164쪽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연계 페이지 수특 11쪽, 수특 75쪽

연계 키워드 술어 논리, 아리스토텔레스 / 프레게

수특 11쪽은 형식논리학의 술어 논리를 소개하고, 수특 75쪽은 뜻이론과 관련해 프레게의 견해를 소개한다. 해당 지문은 프레게가 개발한 술어 논리와 관련해 정언 문장을 분석하고 있다.

1 | 답 ④ 세부 정보 파악 ●●●○○

정답 설명

술어 논리에 따르면 “어떤 S는 P이다.”는 “‘집합 S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P의 원소’인 것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어떤 P는 S이다.”는 “‘집합 P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S의 원소’인 것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두 문장 모두 ‘S이면서 P인 것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그림>에 있는 I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원의 영역을 표시하는 S와 P의 위치가 바뀌어도, ‘※’ 표시의 존재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오답 설명

- ①: 타당한 논증은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논증이다. 따라서 타당한 정언 삼단 논증은 두 정언 문장의 참이 또 다른 정언 문장의 참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논증이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A의 의미가 I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여겼다. 즉 그는 ‘존재 가정’을 함으로써 S가 존재한다고 여겼고, 또한 ‘모든 S’는 ‘어떤 S’를 한 부분으로 포함하므로 전칭 긍정의 의미가 특칭 긍정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여겼다.
- ③: 술어 논리에 따르면 “모든 S는 P이다.”는 “‘집합 S’의 원소이면서 ‘집합 P’의 원소가 아닌 것’은 없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는 결국 “집합 S가 집합 P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 ⑤: 술어 논리에 따르면 전칭 긍정 문장은 ‘존재 가정’이 없어도 가능하다. 즉 “모든 S는 P이다.”에는 ‘S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각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술어 논리에 따라 “모든 일각수는 머리에 뿔이 달린 말이다.”라는 문장을 참으로 받아들인다.

2 | 답 ⑤ 특정 개념 이해 ●●●○○

정답 설명

프레게의 술어 논리에 따르면, 전칭 긍정과 특칭 긍정에서 두 술어 S와 P가 지칭하는 집합의 교집합[→ S∩P]에만 원소가 있다면,

‘집합 S’와 ‘집합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원소가 없는 공집합이므로 전칭 긍정은 참이 된다. ‘집합 S의 원소’이면서 ‘집합 P의 원소가 아닌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S∩P에는 원소가 있으므로 특칭 긍정도 참이다.

오답 설명

- ①: 정언 삼단 논증의 전제들과 결론은 모두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전칭 긍정 “모든 S는 P이다.”로부터 특칭 긍정 “어떤 S는 P이다.”가 타당하게 추론된다.
- ③: 정언 문장은 집합들 간의 관계를 주장하는 문장으로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프레게의 술어 논리에 따르면, “모든 S는 P이다.”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그것은 “모든 x에 대하여, 만약 x가 S라면 x는 P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 S와 P가 술어로 이해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사람’과 ‘죽는 것’이 모두 술어에 해당한다.

3 | 답 ② 세부 정보에 근거한 추론 ●●●○○

정답 설명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I에 포함된 의미를 언급하면 이는 ㉠[→ A의 의미가 I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의 근거가 될 것이다. I는 “‘집합 S의 원소’인 것이 있다.”를 그 의미의 한 부분으로 갖고 있지만, A에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고 “‘집합 S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P의 원소’인 것이 있다.”라는 의미 전체가 A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의 근거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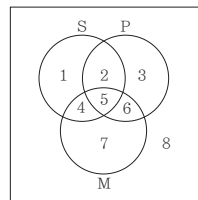
오답 설명

- ①: ㉠은 술어 논리를 따르는 맥락에서 나온 내용이다. 술어 논리에 따르면 A는 S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다만 I는 S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 ③: 술어 논리에 따르면 A로부터 I가 타당하게 추론되지 않는다.
- ④: 술어 논리에 따르면 I는 ‘집합 S’와 ‘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지만 A는 그렇지 않다.
- ⑤: 선지의 진술 자체는 옳다. A는 ‘집합 S’와 ‘집합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주장하지만 I는 이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A에 포함되어 있지만 I에는 포함되지 않은 의미를 언급한 것으로서 ㉠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의 근거가 되려면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I에 포함된 의미를 언급해야 한다.

4 | 답 ⑤ 지문과 <보기> 내용의 종합적 이해 ●●●●○

<보기> 설명

- 1) “모든 M은 P이다. 모든 S는 M이다. 따라서 어떤 S는 P이다.”라는 정언 삼단 논증 [→ ㉡]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에 따르면 타당한 것이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동원하여 타당성을 검사해 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



Day 1

[1~4] 현대시

(가) 오장환, 「성탄제」

(나) 김기택, 「멸치」

: (나) 작품이 어려웠다면, 자료 분석 199쪽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연계 페이지 수특 293쪽 / 김기택, 「멸치」

(나)는 '멸치'라는 일상적인 소재로 자유와 생명력에 대한 발상의 확장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II (가)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가혹해지는 일제의 통치와 근대 문명의 폭력성 앞에서 핍박받는 민중의 비극적 상황을 사슴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 답 ② 작품 간의 비교 감상 ●○○○○

정답 설명

(나)는 살아서 바다를 누비던 멸치가 그물에 잡혀 딱딱하게 굳은 마른 멸치가 되어 가는 모습을 상상하여 묘사함으로써 잃어버린 생명력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설명

- ①: (가)의 '나 어린 사슴은 보았다'라는 구절에 과거 시제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오늘도 물이꾼이 메고 오는'이라는 다음 구절을 고려하면, 이를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회의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가)에서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에는 것가락으로 접시 위의 멸치를 집는 것 외에 화자의 다른 행위는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자의 행위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④: (가)에는 홀로 남겨진 어린 사슴을 향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에는 생명력을 빼앗긴 존재를 통해 원초적인 생명력이 사라져 가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⑤: (나)는 첫 시구가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로 시작하는 데서 보듯 반찬으로 올라온 멸치를 보고 떠올린 화자의 상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멸치가 죽은 현재의 시점에서 멸치가 살아 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를 시간의 역행적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는 피를 흘리며 쫓기는 어미 사슴과 그런 어미 사슴 곁에 있는 어린 사슴의 모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행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2 | 답 ③ <보기>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 ●●●○○

정답 설명

'어린 사슴'이 떠올리는 '쌈'은 죽어 가는 '어미'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을 상징한다. 그러나 '돌아가는 사슴'의 뺨에 '내리'는 '맑은 이슬', 즉 사슴이 흘리는 눈물은 연약한 존재의 순결한 면모와 슬픔을 암시하는 것이지, 당대 민중들이 간직하고 있던 희망이나 이상을 암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설명 | 많이 고른 순서대로

- ④: '쇠북 소리'를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제를 알리는 종소리라고 본다면, '어미' 사슴이 죽어 가는 상황에 '쇠북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어미' 사슴에게 성탄제의 축복이 당기를 바라는 마음, 즉 순결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라는 시구는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을 변용한 것이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는, 죽어 가는 자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맡기고 살아 있는 자는 시련 속에서도 삶을 이어 가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②: '포수와 사냥개'가 '머칠씩 산속에 잠자는' 상황은 사냥이 오래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민중에게 지속적 폭압이 가해지는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알레고리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①: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면 '물이꾼'에게 '쫓기는 사슴'은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있는 민중들을 암시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의 폭력적 시대상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 답 ④ 시구의 의미와 기능 ●●○○○

정답 설명

㉞은 인간이 '그물'로 멸치를 잡는 상황을 마치 '그물'이 주체가 되어 물결 속에 있는 멸치를 떼어 내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자연 속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파괴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자연에 대항하는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설명

- ①: ㉠은 사냥꾼에 의해 상처 입은 사슴이 흘리는 '따뜻한 핏방울'이 차가운 '눈'에 떨어져 있는 장면을 통해 사냥의 잔혹성을 드러냄으로써, 생명을 앗아 가는 비정한 현실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에서 '밤'과 '햇불'은 각각 어둠과 밝음이라는 대조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밤'이 낮도록 '햇불'을 밝히고 짐승을 쫓는 폭력의 현장에서 사슴이 처해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환기한다.
- ③: ㉢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포식자의 위치에 있는 '표범'과 '늑대' 역시 사냥꾼에 의해 희생당한 존재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보다 훨씬 약한 사슴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 ⑤: ㉤에서는 '튀겨지고'나 '담겨졌던'과 같은 피동형 표현을 반복하여 반찬으로 식탁에 올라온 마른 멸치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이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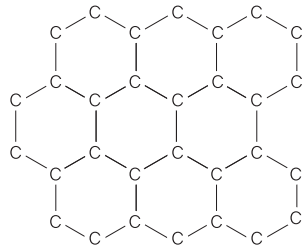
탄소 나노 튜브

소재가 낫설고 문단2, 3에 복잡한 개념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지만 필요한 독해적 판단들은 자극히 전형적인 지문이다. 주어진 정보를 잘 따라가면서 '그래핀' 및 'CNT'의 구조와 각각의 전기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단 1 CNT와 흑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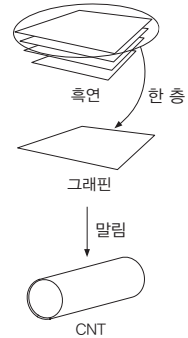
1) **탄소 나노 튜브(CNT)**는 그래핀이 미세한 직경의 가느스름한 관 형태로 말려 있는 물질이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여섯 개가 꼭짓점을 이루는 육각형 탄소 고리가 벌집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단일 층의 물질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흑연에서 분리된 한 층을 지칭한다.

Q 맥락 짚기 지문의 중심 소재로 '탄소 나노 튜브(CNT)'를 소개하면서 그 구조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간략하게라도 그 모습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설명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CNT를 이루는 '그래핀'은 꼭짓점마다 탄소 원자[→ C]들이 위치한 육각형이 평면을 이루며 계속 이어진다. 일부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2) CNT는 흑연처럼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나 구조적 차이로 인해 강도가 더 높을 뿐 아니라 도체인 흑연과 달리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전기적 특성을 띤다.

Q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CNT는 흑연에서 비롯되었으나, 흑연과 달리 '유형에 따라' 그 전기적 특성이 달라진다. 즉 전부 '도체'인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전기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주목하여 이어지는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2 탄소 원자의 공유 결합

1) 그래핀에서 탄소 원자는 이웃하는 세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한다. 이렇게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은 ……

▶ 그래핀에서 탄소 원자는 모두 육각형의 꼭짓점에 위치한다. 문단(1)의 그림을 참고하면 하나의 탄소 원자는 세 개의 탄소 원자와 이웃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 공유 결합 이전에 개별 원자의 내부에서 전자의 확률 분포 공간인 **오비탈**에 있다가,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분자의 내부에서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결합 오비탈'과 '반(反)결합 오비탈'이 만들어지면 우선 **에너지 준위가 낮고 안정적인 결합 오비탈**에 머문다. **에너지 준위**란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말한다. 이 전자들은 **외부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불안정해질 때 반결합 오비탈로 전이**할 수 있다.

▶ 공유 결합 이전에 전자는 해당 탄소 원자의 '오비탈'에 존재한다. 그런데 공유 결합이 형성되면 그로 인해 '결합 오비탈'과 '반결합 오비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우선 안정적인 결합 오비탈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전자들이 외부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불안정해질 때], 반결합 오비탈로 전이할 수 있다.

문단 3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

1) 탄소 고리들이 결합되면서 일정 넓이 이상의 그래핀이 만들어지면 결합 오비탈과 반결합 오비탈에는 각각 **에너지 준위들의 집단인 에너지띠**가 형성된다. 결합 오비탈의 에너지띠를

(나) 현진건, 「고향」

일제 강점기에 농토를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꾸려야 했던 농민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수록 지문 곳곳에서 나타나는 일제 강점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 보자.

토막 1 '그'에게서 들은 '그'의 고향과 살아온 사연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 가 역둔토(=역에 속한 논밭과 군사 요지에 주둔한 군대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 농민에게 경작시켜 수확량의 일부를 거두어가기도 함)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개인이 살림하는 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똑같이 소작인으로 농사를 지어도 나라나 관청이 소유한 역둔토에서 농사를 지으면 소작료 비율이 소작인에게 유리했음]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오려면,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던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동양 척식 회사)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실제 경작하는 소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所出)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 '그'의 고향 주민들]의 입길(=이러쿵저러쿵 남의 흉을 보는 입의 놀림)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하고 타처로 유리하는(=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서술자인 '나'가 요약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의 고향 사람들은 역둔토를 소작하며 넉넉하게 살았는데, 일제 강점 후 동척이 그 역둔토를 차지하면서 '그'의 고향은 쇠락해져 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심한 고생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그'의 모습])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백두산 부근의 만주 지방)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이의 운명이거든[→ 고향에서 내몰린 고달픈 삶]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마음에 들게 시원하라). 그곳[→ 서간도]의 비옥한 전야(田野)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 고향에서 살기 어려워지자 '그'의 가족은 서간도로 쫓겨 갔으나 그곳에서도 가난한 삶 속에서 힘겹게 고생만 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경험은 비단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고향을 떠난 많은 조선인들이 공통으로 겪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중략)

토막 2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에 대한 '그'의 이야기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 서간도에서 고생 끝에 부모를 잃음]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몸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떠도는 신세]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관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벌이는 조금 나왔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율화[→ 고향과 부모를 잃은 외로움과 설움]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림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일본에서 귀국]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 중국의 서간도에서 부모를 잃은 후 일본을 거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의 지난 여정이다. 이제 이야기는 '나'와 '그'가 만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다.

참고

동양 척식 회사는 1908년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독점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책 회사로, 주로 우리나라의 토지를 강점, 강매하여 높은 비율의 소작료를 징수하고 많은 양곡을 일본으로 반출해 갔다.